너를 기다리는 자리



우성이와 지성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 v07

아직 아무도 없던 때였어요.

하늘도 비어 있고
땅도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을 날릴 아이가 없고,
아침이 와도
눈을 비비며 일어날 얼굴이 없었어요.

누군가 가만히 생각하셨어요.
“아, 사랑하고 싶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들어 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빛을 만들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나무와 풀꽃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숲 한가운데 햇볕 잘 드는 곳에
둥근 나무 식탁을 놓으셨어요.

누군가 찾아와 마주 앉기를 기다리는
첫 번째 자리였어요.



어느 맑은 아침,
연두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성아, 빨리 나와!
저기 못 보던 길이 생겼어!”

형 우성이가 운동화를 신고
씩씩하게 앞장섰어요.

동생 지성이는 현관 계단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형아, 잠깐만.
여기 도토리 모자 좀 봐.”

지성이는 반질반질한 도토리 모자를 주워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형아, 여기 봐.”

지성이가 우성이의 옷자락을
꼭 쥐고 당겼어요.

풀밭 너머 오솔길 끝에
둥근 나무 식탁이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나무 컵 일곱 개가
빙 둘러 놓여 있었어요.
둘레에는 생김새가 제각각인 의자들도요.

“누가 벌써 차려 놨지?”



그때 풀숲 사이로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어요.

나눠 먹을 수프를 가져온 해달,
목에 작은 나뭇잎을 붙인 초록 공룡 뇨끼,
둥근 모자를 쓴 모리,
그리고 갓 구운 빵을 들고 온 보리였어요.

“안녕? 혹시 너희도 이 길로 왔어?”
우성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성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 보았어요.
“나, 지성이, 해달, 뇨끼, 모리, 보리.”
그런데 컵이 하나 남았어요.
의자도 하나 남았어요.

해달이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고,
남은 컵을 번쩍 들었어요.
“수프를 여기에도
나눠 담으면 되겠다.”

지성이가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아
원래 자리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손잡이도 빈 의자 쪽으로 돌려서요.
“이건 여기.”



보리가 들고 온 빵 바구니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갓 구운 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다 같이 먹으려고
조금 더 구워 왔어.”

보리는 가장 예쁘게 부풀어 오른 빵을
우성이와 지성이 앞에 먼저 놓아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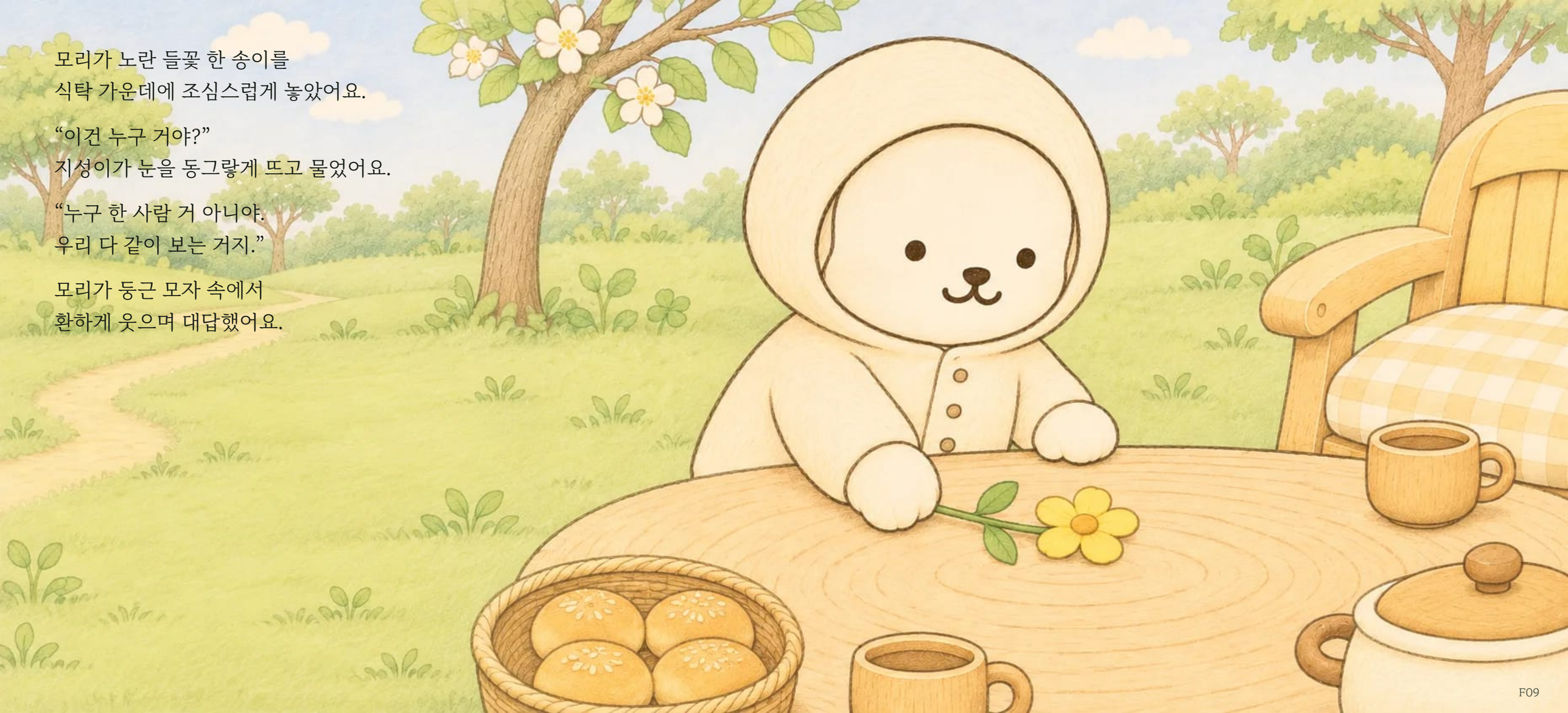


초록 공룡 뇨끼는
식탁 옆 풀밭에 배를 깔고 낮게 엎드렸어요.

발 옆 나뭇잎 위를 지나가던
달팽이 느루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려는 거였어요.

“고마워, 뇨끼야.
네가 만들어 준 그늘은 참 시원하다.”

느루가 천천히 더듬이를 움직이며
인사했어요.



모리가 노란 들꽃 한 송이를
식탁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건 누구 거야?”
지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누구 한 사람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지.”

모리가 둥근 모자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노란 새 피오가
식탁 가장자리에 폴짝 내려앉았어요.

“다 같이랬지? 나도 여기 있어!”

지성이가 자기 빵에서
작고 보드라운 부스러기를 떼어
피오 앞에 놓아주었어요.

“피오야, 너도 같이 먹자.”





아이들과 친구들은
둥근 식탁에 빙 둘러앉았어요.
해달이 자기 컵에 수프를 담았어요.
“먹고 싶은 친구, 컵 이리 줘.”
우성이와 지성이가 컵을 내밀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온 햇살이
아이들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어요.
빈 의자 위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때 바람 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와 함께 앉고 싶었단다.”

“형아, 방금 들었어?”
“응.”
형제가 빈 의자를 돌아보았어요.

보리와 해달이 빈 바구니와 냄비를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우성이와 지성이는 앉았던 의자를
반듯하게 밀어 넣었어요.

“다음에 올 친구도
기분 좋게 앉아야 하니까.”

지성이는 주머니에서 도토리 모자를 꺼내
빈 의자 앞 컵 옆에 놓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

햇빛은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